

영진전문대학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 4년제 U턴, LS-Nikko동제련 취업 이승진 (전자정보통신계열)



◎ 늦깎이 신입생 25살에 영진에

안녕하세요 전자정보통신계열을 올해 졸업하고 LS그룹 계열사인 LS-Nikko동제련에 근무중인 이승진입니다. 25살 3월(2014년)에 영진에 입학해 목표했던 대기업에 입사하게 돼 굉장히 기분 좋고 또 운도 좋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적지 않다보니 한 살이라도 어린 27살에 졸업예정자로 취업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걸 이루게 되어서 정말 좋고 게다가 좋은 기업에 들어오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경북 경주시의 인문계 고교를 졸업하고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에 입학했습니다. 아버지가 20여 년 전 불의의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학자금 대출로 2학년 1학기까지만 영대를 다니다가 더 이상 등록금을 구할 수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병무청 생계유지감면으로 군 입대는 면제를 받았고, 이후 4년간 통신사 휴대폰 판매 일을 했습니다.

실적도 좋아서 급여는 많이 받았지만 미래의 대한 불안감은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 제가 24살 때 같이 일하는 동료(25살) 퇴사하고 전문대에 입학한다는 소식을 듣고 의아했어요. 다니던 대학교에 복학도 아니고 전문대에 새로 입학한다는 게 의아했으나 제 일도 아니고 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1년 후 우연히 만났는데 영진전문대학을 다녀 포스코에 입사했다고 해서 무척 놀랐어요.

그래서 알아보니 대기업 메인터넌스 같은 기술직의 경우 대졸을 뽑지 않고 주로 전문대졸 채용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또 기술직은 보통 사무기술직과 다르게 정년보장도 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인문계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고졸로는 대기업 지원이 불가하더군요.

그래서 이공계열 전문대를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학교를 선택하는데 영남대를 다녔기 때문에 대구권 전문대는 잘 알고 있었고 그 중에 영진전문대, 주문식교육, 높은 취업률을 잘 알고 있었죠

◎ 학점 관리에 매진

일단 늦은 나이에 입학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열심히 했어요. 합격스펙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학점관리를 열심히 했어요. 들뜬 마음으로 갓 대학생이 되었을 때의 마음을 이미 경험하였기에 조금만 열심히 하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하다보니 1학년 전체 4.5학점 만점을 받았어요.

LS-Nikko동제련 입사는 학과에서 유일하게 교수님 추천을 받아 입사했습니다. 영진의 힘을 느낀 순간이죠. 회사는 울산에 있고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비철금속 제련소입니다. 저는 화성팀 유틸리티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합격통지를 받고 독신자 숙소에 입소하라는 메일을 받았을 때의 기분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부모님은 정말 좋아하셨고 친구들도 다들 부러워했죠. 어떻게 보면 인생을 건 도박을 성공한 셈이니까요. **제가 그때 같이 학교가자고 꼬신 친구들이 있는데 다들 안 갔거든요.** 근데 부러워하면서 나도 갈 걸 안간 거 후회한다는 말도 들었어요.

◎ 기술직은 정년 보장되는 문화

기술직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마다 다르지만 정년이 거의 보장되고 또 OT(잔업)에 따른 높은 급여와 교대근무를 하지만 쉬는 날도 있고 자기시간이 많아 여가생활 즐기기가 좋아요. 회사에 동호회도 많구요 (저도 벌써 2개나 가입했어요) 사무직은 임원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정년보장이 거의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면접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자기가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본인이 잘 알거예요.** 거의 물어보니까 그에 대한 대답만 잘 한다면 불리한 점이라도 플러스가 됩니다. 대답 여하에 따라 유리한 점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유리하든 불리하든 여러 명의 지원자 중 나에게 질문이 올 수 있을만한 일들을 많이 하세요. 파이팅입니다^^